

사설

‘한약재 중금속 및 표백제 검출’ 보도내용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생약재배 농민들에게 엄청난 파장효과를 몰고 왔다. 무엇보다 국산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는 뒷통수를 얻어 맞은듯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농산물이거나 식품도 아니고 약으로 먹는 한약재에서의 오염물질 함유는 분명 시정돼야 할 사항이고 과제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웬지 앞뒤가 영성하고 느닷없어 ‘감추어진 숨은뜻은 무엇일까’ ‘꼭로 그 뒷배경에는 혹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보는 시선이 많은게 사실이다. 숨은 저의가 없었다고 해도 품질관리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에서 대안없는 한건주의식 꼭로로 일관한 무책임한 조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선 꼭로대상이 불법유통되고 있는 수입약재가 아니라 국산한약재라는 것부터 그렇다. 지금 시중

에는 ‘보따리 물건’으로 대량 수입된 불법약재들이 유통한약재의 20~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품질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국내 유통됨으로서 안전성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인데도 지금까지 식약청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도 내려본적이지 않다.

더구나 국산한약재는 생산기반

중금속등이 검출된 약재가 진짜 국산인지를 입증할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거나 혼용유통이 비밀비재한 현실에서 샘플약재만 놓고 국산여부를 식별해 낼 수 없는 것이 한약재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를 통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만을 선전포고하듯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왜 늘 ‘사후약방문’ 식이어야 하는지. 국산약재에서 중금속이나 표백제가 검출되기 이전에 이에대한 적절한 재배법과 토양관리법을 정립하고 건조방법등에 대해서도 지도, 계몽할 수 없는지. 대안이나 대책없는 단속은 범법자를 양산해 낼 뿐이다.

한약재 품질관리는 보다 근본적 단계인 재배과정에서부터 지도 관리돼야 한다. 더구나 중금속 검출문제는 토양오염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농민이나 업자들에게만 떠넘길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속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정책수행의지를 보여줄 때다.

농민에게 떠넘길 문제가

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물밀듯 들어오는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수입약재 시장점유율이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수입약재부터 품질검증체계를 확립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니었을까.

이번 발표가 무책임한 조치라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결정적으로 식약청에서 수거해 검사 결과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곡물, 채소, 과일등에도 중금속은 함유돼 있고 식품공전상 개별 중금속에 대한 시험법이 별도 규정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총중금속양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가 이다. 그러나 국산한약재에서 검출됐다는 총중금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인지에 대해서 식약청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금속 및 표백제 성분 검출원인은 어떤 경로

집중호우로 약용작물 ‘흉작’ 생산기반 붕괴우려, 육성책마련 시급

국산한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세폭락으로 생약재배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울 파종면적이 대폭 감소했고 작황도 부진한 때문이다.

산수유나 구기자 오미자 등 열매약재부터 황기 당귀 일천궁 작약등 뿌리약재에 이르기까지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지난 여름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확면적도 대폭 감소, 예년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라 추정된다.

이처럼 생약재배 기반이 갈수록 약화돼 가고 있고 생산농가들의 재배포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생약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미자 산지인 전북 장수군의 정연수씨(생약협회 장수군 사무소장)는 “초창기에는 열매가 그런대로 열렸는데 늦은봄 우박이 쏟아진 데다 긴 장마 영향으로 습한기운이 많아 열매작황이 부실한 형편”이라며 “예년의 경우 거창, 함양, 무·진·장 부번으로 약10만근 이상이 생산됐으나 올 생산량은 40%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을 생약농사중 작황이 제일 부진한 작목은 단연 산수유.

전남 구례군 정일영씨(생약협회 구례군 사무소장)는 “봄철 개화기때 서리까지 겹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은 나무가 많아 수확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라며 “올 산수유 작황은 완전 전멸상태로 수확해서 팔 물건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고량이 많아 시세가 턱없이 폭락했던 황기 당귀등도 올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시세가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다.

1년근 소황기가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경기도 포천지역의 경우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황기밭 대부분이 침수되는 바람에 뿌리가 썩어 나갔거나 또는 온전하더라도 토심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이다.

올들어 급격히 생약농사 작황이 이처럼 부진한데는 기상재해 원인 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약재배 기피현상이 낳은 생산농가들의 관리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약재들이 시중에서 국

산한약재로 불법유통됨으로써 국산시세 하락을 부추기고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시세폭락으로 생산농가에서는 점점 생약재배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것.

「한약재 품질향상…」토론회

한약관련단체, 10월 중순경 개최예정

시중유통 한약재에 대한 식약청의 단속강화 방침에 이어 자구책 마련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관련단체들의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한의사협회, 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생약협회등 5개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한약관련단체 협의회는 이어 각 단체 실무진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중순쯤 ‘한약재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개최 취지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 및 가격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약재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따라서 목적의식을 갖고 약용작물 재배에 임하기 보다는 “남는 땅을 그냥 놀리느니 약초를 재배한다”는 식이어서 관리소홀은 물론 기상재해나 병충해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내 생약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생약농업육성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이 높다. <문>

을 마련키 위한 것.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련단체들은 “식약청이 시행하고 있는 실적위주의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한약재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북한산 한약재 600t 반입키로 제24차 수급조절위원회 결과

북한산 한약재 600t이 반입될 예정이다. 9월24일 열린 제24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백출 300t, 오미자 30t, 시호 30t, 목단 30t, 지황 210t, 등 총 600t 북한산약재를 반입키로 결정했다. 통관일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

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반입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내 선적 확인분에 한해 1회(1개월) 통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품공업협동조합과 도매협회등에서 수입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시 결정기로 유보됐다.

한편 기존의 14인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이 16인으로 증원된 후 갖는 첫 모임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의약품수출입협회 김성한 부회장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아가리쿠스가공품 수출 선기천골드등 5종, 미국에

신령버섯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가리쿠스 가공품이 국내 처음으로 수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아가리쿠스 가공품은 재배농가의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을 통한 재배농가의 출하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에 나선 업체는 (주) 아가리쿠스로 지난 2월부터 미국시장에 직접 수출함으로써 버섯가공품 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제품은 아가리쿠스 추출액인 선기천 골드·실버, 헬쿠스 프로, 과립형 아가리쿠스 차와 지난달부터 출시된 캡슐형 이뮤노 비타 등 5종에 이른다.